

고흥과역중, 아름다운 수학의 세계 경험 'Math Day' 열려

교내수학동아리 활동 내용 공유 및 체험해 수학적 원리·개념 실생활과 연관지어 경험

고흥과역중은 지난 20일 교내수학실에서 전교생(25명)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수학의 세계를 체험해 보는 'Math Day'를 운영하였다. 이 날 행사를 통해 수학적 원리와 개념을 실생활과 연관지어 경험하면서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즐거움을 가졌고, 한 해 동안 교내 수학동아리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체험하면서 수학 세계의 아름다움을 눈 앞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오전에 학생들은 여러 교과와 융합하고 연계하여, Skyscrapers 퍼즐을 풀고 라틴방진에 맞추어 타일을 조립해 보았고, 시에르핀스키 피라미드 만들기를 통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합이 변하는 과정을 체험해 보

았으며, 1/7로 축소되는 슈링클스지에 도형과 자신의 생각을 그려본 다음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밖에도 IQ퍼즐 랩스를 조립해 보면서 여러 다면체를 관찰하였고, 입체비누막을 만들어 페르마 포인트를 찾아보는 신비한 경험도 해 보았다.

오후에는 전교생이 다양한 보드게임을 통해 수학 기네스 도전활동을 펼쳤다. 고도의 수리력과 추리력을 요구하는 '루미큐브'와 '다빈치', 논리력과 사고력을 이용한 'SET'과 'Avalon',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Let a Tat Cat', 정보처리 능력 향상을 위한 '오펜차순 Streams', 순발력과 판단력 향상을 위한 '0과3을 찾아라' 등 여러 가지 흥미진진한 수

학 게임에 도전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체험하였다.

이 날 행사에 참여한 정민영 학생(3학년)은 "Math Day 덕분에 수학에 대한 호기심이 높아졌고, 앞으로 수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또한 전교생들과 함께 즐기는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학동아리회원들에게 수학 관련 활동을 하면서 앞으로 쉽게 느끼기 힘든 신기하고 놀라운 기분을 느끼게 된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라고 하였다.

'Math Day'를 계획하고 추진한 강영란 수학교사는 "수학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학생들이 단 한 번이라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면 충분합니다. 학생들이 자신도 모르게 수학적 재미에 푹 빠져 즐기는 모습을 보니 수학 교사로서 행복할 뿐입니다. 준비 전체 과정에 수학동아리 학생들이 신나게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활동하며 어우러지는 모습



을 보니, 한층 성장한 수학동아리 학생들에게 박수쳐주고 싶습니다." 라고 뿌듯한 마음을 밝혔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여수 나진초, 겨울 스포츠 체험 실시

여수나진초등학교에서는 매년 겨울을 맞아 건강과 재미가 함께하는 겨울 스포츠 체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아이스 스케이트, 잔디 썰매, 연날리기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이어 올해는 시골 지역 대부분의 아이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스키를 체험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번에는 사계절 내내 가까운 거리에서도 즐길 수 있는 광주 실내 스키장에서 1:1 강습을 통해 스키 기본 자세와 주법을 세세하게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는 넘어지고 일어서기도 힘들었지만, 선생님과 친구들의 응원과 격려 속에서 아이들의 실력이 일취월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앞서 오전에는 시골 지역의 아이들에게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에서 집라인, 트램폴린, 암벽등반, 실내축구, 스포츠 슬라이딩 등 실내에

서도 다양하게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행사에 참여한 권00 선생님은 "눈과는 거리가 먼 따뜻한 남쪽 지역 아이들에게 겨울은 운동하기에 좋지만 한 계절이라는 생각에 조금 아쉬웠는데 오늘을 계기로 아이들이 겨울에도 신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라며 소감을 전하였다.

그리고 1학년 최00 학생은 "처음에는 일어서기도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신나게 탈 수 있어서 정말 재미있었어요. 몇 번이고 계속 또 타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빨라서 아쉬웠어요. 가족과 함께 이번 겨울 방학에는 꼭 스키장에 가서 맘껏 또 타고 싶어요."라며 아쉬워했지만 소중한 경험을 말하였다.

여수=김현근기자

영암 신북초, 일 년간 실시한 '나도 작가' 프로젝트 성료



영암 신북초등학교는 일 년간 실시한 '나도 작가'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지난 20일 출판 기념회를 열었다. '나도 작가'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독서 인문 예술 소양 함양을 위해 2학년과 4학년 두 학급이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실시한 장기 프로젝트

'나도 작가' 출판기념회 개최

트이다. 이를 위해 영암교육지원청의 인문 독서 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예산을 지원받았다. 4학년은 삶과 나에 관한 글이라는 뜻에서 삶에서 출판사를, 2학년은 늘 즐겁고 활기찬 생활을 담기 위해 뽀뽀한 출판사를 각각 구상하여 창작 및 출판 작업을 이어왔다.

학생들은 북카페 체험학습 및 책 함께 읽기, 다양한 그림책 살펴보기 등을 통해 다양한 장르와 책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 후 학생들이 직접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구상하고 그림을 그리고 채색하였다. 또 표지 디자인과 편집의 과정을 거친 결과 14권의 나만의 그림책이 탄생했다.

영암=조대호기자

장성사창초-삼계면, 함께한 협력·연대의 벽화 그리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실시

장성 사창초등학교와 농협 벽 일대에 아름다운 그림이 수놓아졌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 참여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가 모두 손을 모았다. 물감과 붓을 들고 원하는 곳에 하나씩 색을 입혀나갔고 그 자리에 금세 개나리가 피어나고 나비가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지나가다 멈춰 서서 사진을 찍고 싶어지는 멋진 벽화를 탄생시켰다.

우리 마을 골목길 벽화 그리기 프로그램은 계획 단계부터 장소 제공, 벽 청소, 벽화 채색까지 삼계면 사무소, 삼계면주민자치위원회, 삼계농협 등 삼계면 유관기관과 마을 주민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공동체의 모범 사례가 되었다. 장성=기동취재본부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